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신 경기도교육감

제목 경기 지역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간담회 제안

1. 본 공문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소속 단체를 대표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들, 전국학생협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인권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모인 일시적 연대체입니다.
2. 오는 11월 3일은 ‘학생 저항의 날’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현재 이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생 저항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은 매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최근 서울, 충남, 경기,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조례 개악, 폐지 등 학생인권 정책의 후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은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을 꾸려 학생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흐름에 맞서고 있습니다.
4. 경기도교육원의 ‘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6.4%), 교사에 의한 폭언(14.1%), 교문 교복/용모 지도(74.6%), 상벌점제 운영(21.1%)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학생인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경기 지역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조례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여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2022. 11. 3.(목) 15:30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 학생인권 반대 세력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를

제안드립니다. 규탄집회가 끝난 직후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임태희 교육감이 만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루



결재 2022-10-27

시행 학생저항-22102701 (2022-10-27) 접수

우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13(양평동1가) 2층 / <https://asunaro.or.kr>

전화번호 [REDACTED] 팩스번호 0504-290-1596 / asunaro@asunaro.or.kr / 비공개(6)